

50대 · 고소득층 소비성향 하락...“인구 고령화 큰 영향”

50대 이상 가구서 국가 연금 제도 · 노후 소득원 불안정 영향 반영

한은 “정책 추진 때 미래 소득에 대한 급격한 기대변동 없도록 유의”

지난 2012년 이후 50대 · 고소득층 가구가 소비성향을 끌어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하며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최근 소비성향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보면 2000년대 일직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성향은 2012년

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15년 이후 소폭 반등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3년 카드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간 하락한 후 곧바로 회복됐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 대비 2018년 소비성향 변화를 요인별 기여도로 분해해 분석한 결과 고령층 · 고소득층이 소비성향 하락을

주도했다. 소득을 통제해 후 연령대별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0.3%p(포인트), 40대는 -1.5%p, 50대는 -2.1%p, 60대 이상은 -1.6%p로 나타났다. 연령을 통제해 소득분위별 소비성향은 소득 1분위 0.2%p, 2분위 -0.5%p, 3분위 -0.8%p, 4분위 -1.9%p, 5분위 -2.7%p로 고소득일수록 소비성향이 감소했다.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의료 · 보건 등 소비성향이 높아진 항목도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의식주 관련 필수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했다. 2012년 대비 2018년 평균소비성향 변화의 항목별 기여도는 임대료 및 수도광열(-1.4%p), 교육서비스(-1.3%p),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1%p), 의류 및 신발(-1.0%p) 순으로 소비성향이 떨어졌다. 연구진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소득원이 안정적이지 않아 50대 이상 가구의 미래소득

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성향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했다. 김대용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장은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선진국처럼 건실하지 못한 가운데 여타 소득원도 안정적이지 않아 50대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그 우려가 반영되면서 2012~2016년 소비성향은 빠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대체로 자산효과가 작아졌다. 이는 인구고

령화가 진전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될수록 가계 소비에 미치는 자산효과는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산효과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김 조사총괄팀장은 “최근의 소비성향 변동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00년대 초중반 수준으로 복귀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정책 추진 때 미래 소득에 대한 급격한 기대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산효과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날의 칼’ 갤럭시S20 울트라...’괴물 폰카 vs 몰카 주의보’

10배 · 30배 줌까지의 화질 저하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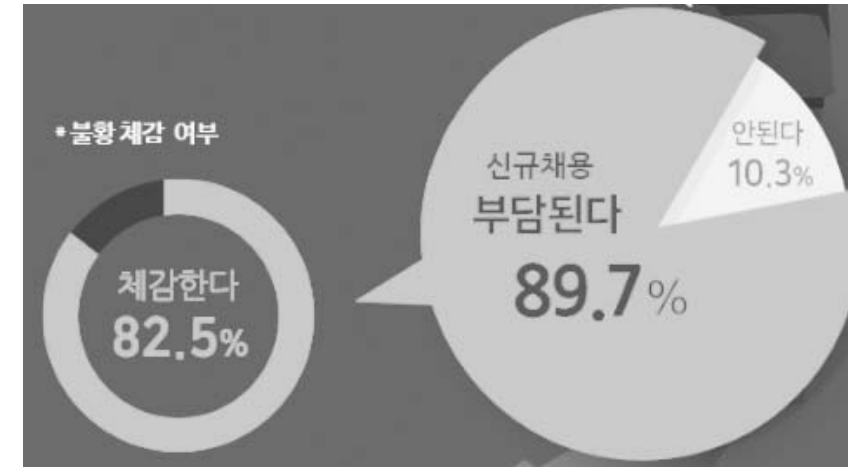


삼성전자 갤럭시S20 울트라의 ‘100배 줌’ 기능이 연일 화제다. 이에 따라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초 고사양의 카메라가 탑재되는 스마트폰의 ‘몰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20일 예약판매를 시작한 갤럭시S20 시리즈는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S20 울트라의 경우 최대 100배 줌, 갤럭시S20과 갤럭시S20 플러스(+)-는 최대 30배 줌을 지원한다.

특히 갤럭시S20 울트라에는 ‘폴리드 줌’ 기능을 바탕으로 최대 10배 줌까지의 화질의 저하 없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폴리드 줌은 잠망경의 원리를 이용해 망원 렌즈 내부에 작은 ‘프리즘’을 탑재해 빛을 굴절시켜 얇은 두께로 고배율 망원 기능을 구현한 기능이다. 이와 같은 갤럭시S20 시리즈는 고배율 줌 렌즈뿐 아니라 ‘손떨림 방지 기능’ 역시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용자가 ‘악의’를 가진 경우, 몰카를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슈퍼 스테디 기능, 줌으로 확대해도 삼각대 없이 손으로 사람 따라갈 만 해 실제로 갤럭시S20 울트라의 하이 레슬루션 줌 기능을 이용해 줌을 매장 내부에서 길 건너에 주차된 트럭을 48배 줌으로 확대해봤다. 중간에 매장 유리벽이 있음에도 트럭에 써진 글씨는 물론, 세세한 돌기 그림자까지 선명하게 표시됐다. 이번엔 75배로 줌을 확대한 가운데 스마트폰 렌즈 방향을 이리저리 돌려보니 길가에서 걷는 사람의 얼굴이 포착됐다. 75배로 확대해도 순식간에 갤럭시S20 울트라 카메라의 얼굴인식 사각형틀이 뜰 정도로 사진은 명확했다. 또 회전 방지 기능과 인공지능(AI)기반 모션 분석 기능을 통해 강화된 손떨림 방지 기능인 ‘슈퍼 스테디’ 기능을 통해 75배 줌으로 걷고있는 사람을 삼각대 없이 카메라로 따라가며 찍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

갤럭시S20 울트라에 찍힌 사람은 매장 내부로 들어왔으나 가자가 본인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더 선명한 DSLR 있어도 더 선명한 ‘폰카’는 없어...” 우려 제기 가능” 갤럭시S20 울트라의 최대 줌인 100배 줌은 화질이 다소 떨어지지만, 10배까지는 이미지 손상이 거의 없었다. 전작인 갤럭시노트10+의 경우 디지털 확대까지 포함한 줌 최대치가 10배였다. 또 하이 레슬루션 줌 기능이 적용돼 약 30배 줌까지 확대하더라도 화질 손상이 크지 않았다. 몰카 우려에 대해 “이미 갤럭시S20 울트라보다 훨씬 선명하게 찍히는 DSLR 카메라도 많”은 지적도 있다. 그러나 갤럭시S20 울트라처럼 작은 ‘스마트폰’ 이 이와 같은 카메라 성능을 제공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스마트폰의 경우 다른 앱을 사용하든지, 사진을 찍지 때 알아볼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갤럭시S20 시리즈, 특히 역대급 ‘폰카’를 자랑한 갤럭시S20 울트라는 충분히 몰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양날의 칼’ 이 될 수 있다.



기업 10곳 중 8곳 “90% 신규 채용 부담”

불황을 실감하는 기업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기업이 신규 채용과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기업 412개사를 대상으로 ‘불황 체감과 인건비 부담’을 설문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82.5%)이 ‘불황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또 10곳 중 9곳(89.7%)은 불황으로 인해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같은 상황 변화로 달라진 점(복수 응답)으로는 ‘채용 규모 축소’(39.4%)가 1위로 꼽혔다. 뒤이어 △채용을 잠정 중단함(34.1%) △경력적 채용 비중 높임(25%) △사내추천 활용(11.5%) △인턴 등 채용 전 검증체계 강화(9.7%) △수사채용 확대(9.7%)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할 대응책(복수 응

답)으로 ‘임금 동결’(3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채용 규모 축소(25.5%) △상여금 축소 또는 지급 중단(24%) △인원 감축(23.4%) △채용 중단(19%) △야근 및 휴일 특근 금지(17.5%) △구조조정 등 인원 감축(11.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70.5%) △매출 하락 및 성장세 둔화(39.5%) △인건비 외 고정비 증가(23.6%)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추가 인력 고용(17.8%) △숙련 인력 유출로 인당 생산성 약화(6.2%) 등을 들었다. 한편, 기업들은 현재 경영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소비부진으로 내수 위축(31.1%) △최저임금 상승(29.9%) △우수 인재의 이탈(11.2%) △업종 관련 법적, 제도적 이슈(9.5%) 등을 꼽았다.

“마트 가기 무서워요”...쓱 ·마켓컬리 · 쿠팡 ‘조기 마감’ 속출

주문 폭주로 ‘배송 전쟁’ 비상대응 체제 돌입

대구에 사는 김은수씨(가명)는 요새 가족들의 끼니를 마련하는 것이 일이 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장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방문한 대형마트는 문을 닫았고, 이커머스는 주문 폭주로 ‘조기 품절’이 다반사다. 김씨는 “장을 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 공포가 확산하면서 모바일과 온라인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조기 품절’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SG닷컴과 이마트몰의 측배송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평균 주문 마감률이 80% 초반이었으나, 지난 22일에는

전국적으로 99.8%까지 상승했다. 이미 대구 · 경북 지역은 28일까지 모두 마감돼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도 편차가 있지만, 오는 26일까지는 대부분 주문이 마감됐다. 매출도 지난달 같은 기간(1월 19~23일)보다 47.1% 늘었다. 식품이 52.3% 주문이 증가했고 라면과 통조림은 각각 23%, 28% 매출이 뛰었다.



공기청정기 3종 특가 판매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기전 매장에서 열린 공기청정기 추천 상품전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성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공기청정기 다이스 퓨어 콜 공기청정기(TP04), 린나이 블루에어 클래식 505 공기청정기, 미로 공기청정기 맑음(MP27WSG)3종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전국 배송이 가능한 쿠팡도 주문 마감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220만~230만개던 출고량은 설 이후 300만개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대구 · 경북과 부산 지역은 배송 인력이 부족해 판매가 어려운 지경이다. 수도권도 일부 품목은 조기 마감 상태다. 마켓컬리 역시 새벽배송 배송량이 설 연휴를 전후로 40% 가까이 늘었으며, 오아시스도 주문 급증으로 수요일 새벽배송까지 마감된 상태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소비자들 사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으로 몰린 탓이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사람들이 많은 물리는 장소는 피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장보기에 나섰다. 업계서는 당분간 이커머스 주문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앞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15년에도 쿠팡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들의 성장세가 가팔랐다. 뉴스1

‘13월의 월급’ 직장인 연말정산 희비

환급 · 환수 평균금액 차이 116만원 달해

직장인들이 2019년 연말정산을 통해 토해 내야 하는 액수가 평균 6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와 지난 13~18일 직장인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86.7%는 연말정산을 마쳤으며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64.5%, 더 내야 하는 경우는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4%는 더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평균 환수액은 61만5000원으로, 많게는 950만원에 이르렀다. 반대로 돌려받는다는 응답자의 평균 환급액은 55만2000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는 510만원, 가장 적은 액수는 500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7.0%가 ‘만족’, 43.0%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환급과 환수를 가른 요인을 자체 평가하도록 한 결과 1위로

기본공제(23.2%)가 꼽혔다. 이어 신용카드(19.5%), 의료비(13.9%), 보험료(10.4%), 자녀 세액공제(9.0%) 순이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76.5%는 올해부터 축소된 자녀 세액공제로 인해 전체 환급액이 축소됐다고 답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7세 이상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세금 납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결과 ‘너무 많이 납부한다’가 33.5%, ‘많이 납부한다’가 42.3%로 등 75.8%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답했다. ‘적당히 납부한다’는 22.5%, ‘조금 납부한다’는 1.7% 수준이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 미술관을 신용카드로 사용분에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